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2025. 2. 14.(금) 13: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블루카본,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포럼 축사



완 도 군 의 회

축 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블루카본과 해양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의장 **김양훈**입니다.

오늘 ‘블루카본,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주관해 주신 완도군, 한국해양바이오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허종식, 손명수, 김동아, 정진욱** 국회의원님 **신우철** 군수님,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허궁희, 조영식**

동료의원님들과 **김현성**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님, **최임호** 한국수자원공단 전략실장님, **차형준** 해양바이오산업협회 회장님,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님, **최봉학**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블루카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 서식장은 연간 약 3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 흡수량을 2030년까지 106만 6천 톤, 2050년까지 136만 2천 톤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조류 양식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면, 원도군은 대한민국 해조류 양식의 중심지로서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완도군의회는 해양산업과 블루카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 바이오산업이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 양식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완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환경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와 미래 산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어지길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논의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